

배합사료공장 시설근대화 자율화

- 이전·증설시 일산능력 100톤 이상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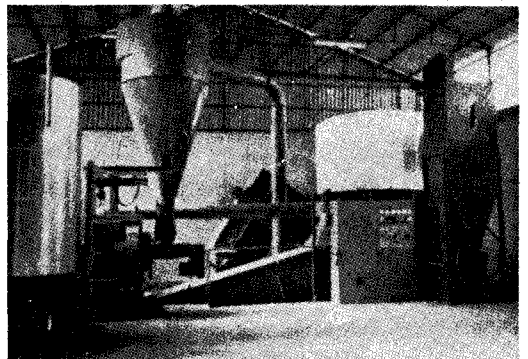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배합사료제조시설근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수정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할 예정이다.

농수산부가 지난 77년 11월부터 82년 11월 까지 추진키로 한 배합사료 제조시설 근대화 사업은 배합사료공장의 생산능력증대와 업계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제고로 일반공장에 대해서는 시설근대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지원도 중단 (Silo 시설 자금은 제외) 함은 물론 농협 APB 차관공장을 제외한 신규공장 허가도 일체 불허 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공장에 대하여는 시설근대화를 당초방침대로 82년 11월 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자율화 함에 기히 시설근대화 승인을 얻어 융자금을 수령한 공장은 승인받은 시설을 완료해야하나 앞으로는 일반공장의 이전 증설시는 일산능력 100톤(8시간 가동기준) 이상으로 하며 시설 기준에 의거 반자동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히 작성시달된 200톤과 300톤 규모의 시설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100톤, 150톤규모의 생산능력별 세부시설기준을 작성 하였다.

또한 정부는 시설근대화공장에 일개월분의 원료저장(Silo)시설을 갖추게 하며 근대화를 완료한 공장에도 추가로 1개월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협소속 8개공장에 7억 2천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대규모양돈장

메탄가스시설설치

— 농가취사·난방등 이용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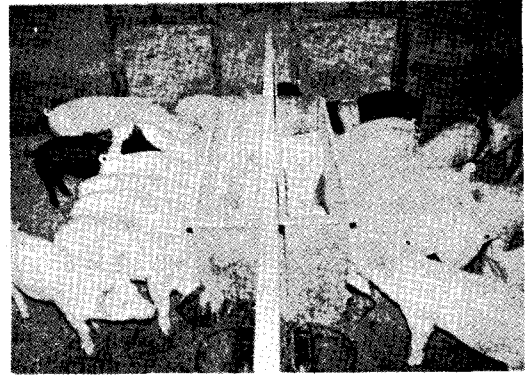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최근 공해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양돈장의 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기위해 앞으로 전업·기업 목장에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농촌진흥청과 충남 성환에 있는 연암축산전문대학에서 개발 연구한 결과에 따라 가축의 분뇨를 완전하게 발효를 시키면 분뇨의 오염도를 68%나 줄일수 있다고 판단, 가축공해방지대책의 하나로 메탄가스시설을 전업·기업 목장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메탄가스 시설을 함으로써 가축의 분뇨로 인한 공해를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뇨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 농장자체는 물론 인근

농가의 취사, 난방 및 전기를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돼지 5백마리이상 사육하는 농장에서 이같은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암축산전문대학은 7백50마리의 가축분뇨를 처리, 학교돈사와 인근 농가에 메탄가스를 공급하여 난방과 취사에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은 앞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사료원료 도입체제 전환

— 민간주도로 전용사이로 건설도 —

농수산부는 지금까지 축산진흥회에서 맡아 온 사료원료도입을 민간도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한편 민간자본을 투입, 사료전용 사일로를 건설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 옥수수변질 사건등 사료원료도입을 둘러싼 부작용이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와 도입자인 축진과의 분리체제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도입토록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도입옥수수를 신속히 처리, 변질을

막기위해 주요항구에 사료전용 사일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막대한 사료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내년부터 한진·동명등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인천·부산등에 사일로를 건설토록 하기로 했다. 그런데 축진이 맡아온 사료도입이 민간도입 체제로 바뀔경우 국내사료값 안정을 위해 운용되던 사료값안정기준가격제도의 새로운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쇠고기값 연동제 실시

— 행정지도 폐지, 적정가 형성유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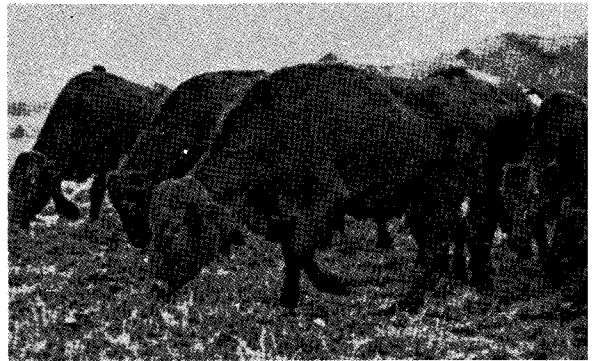
정부는 소의 자급기반을 마련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위해 3월 15일부터 현행쇠고기 소매행정지도가격을 철폐하고 소매가격을 자유화하되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과 연동시켜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당국은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육경락가격은 kg당 3천4백원선으로서 유통제비용(수송비·공과금)과 정육점의 적정이윤을 감안했을때 서울의 경우 소매가격은 6백g 한근에 3천원 이라고 밝히고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볼때 지육경락가격이 kg당 3천4백원이면 4백kg짜리 숫소 한마리 가격은 적정생산비를 약간 상회하는 75만원으로서 생산가격지지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부 당국은 중간상들의 폭리와 식육판매상들의 조작에 의해 소비자가격이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유통단계별 적정이윤폭(산지소값과 최종소비자 가격간의 차액)인 32%의 마진을 기준으로 잡아 적정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연동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의 변동에 따른 쇠고기소매가격연동표를 작성고시하고 각시도에 출하자(양축농가·농협) 소비자(소비자·소비자보호단체) 업소(정육점·요식업소) 대표로 구성되는 쇠고기가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5일간의 도매시장 지육경락 평균가격이 전기보다 3%이상 변

동이 있을 경우에는 쇠고기 소매가격을 심의 결정토록하는 보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 연동제를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쇠고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쇠고기를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정육점이 부당 가격조작을 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발동하여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 연동제 실시와 아울러 축산진흥회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공급가격(소매)도 연동시켜 해당지역의 한우고기시가(소매)의 80%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소매가격이 근당 3천원일 경우 수입쇠고기 판매가격은 현행 2천원에서 2천4백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쇠고기 소매가 상한선을 상반기에는 근당 3천2백원, 하반기에는 3천5백원선으로 잡고 있다.

제 1회 국제농기계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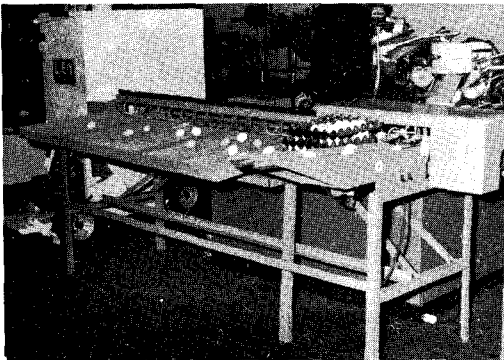
—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12개국 출품 —

제 1회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지난 3월 31일 상오 신현확 국무총리, 이재설 농수산부 장관 등 관계인사와 관련업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소재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서독, 이태리, 화란, 덴마크, 영국, 호주, 자유중국, 스위스, 벨기에 등 12개국에서 출품한 1백 29종 6백 22점의 각종 농기계가 전시되었다. 이밖에 본 전시회에는

세계각국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44종 3백 4 점의 농기구도 전시되었다.

출품된 농기계는 축산용 69점, 수도용 1백 60점, 원예용 2백 22점, 전작용(田作用) 87점, 산림용 47점 등인데 축산용으로는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선란기, 돼지 임신진단기, 착유기 등 다수가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4월 6일까지 1주일간 개최,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다.



가금영양 세미나 개최

영양사료연구회(회장: 강면희)는 미국 코넬대학의 세계적인 영양학자 스코트박사를 초빙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2시 롯데호텔 2층에서 가금영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한일농원과 한일사료(주)가 후원하고 있다.

농수산부인사

식산차관보	김영진(농산차관보)
축산과장	김권철(낙농과장)
낙농과장	송찬원(축산과장)
사료과장	이상무(농특기획과)

* () 안은 전직*

농산물가공등에 내외자

446억 투융자

— 농수산부, 80년부터 4년간 지원 —

농수산부는 오는 7월까지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5천만달러 규모의 IBRD 2차 농산물불합가공차관사업의 년도별 자금투융자계획을 마련 80년부터 83까지 4년간에 걸쳐 내외자 3백56억 9천 1백만원을 농산물가공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7년~79년사이에 1천 3백만 달러가 도입사용된 1차 IBRD 차관사업에 이어 2차

로 도입되는 이 차관은 외자 2백90억원(5천만달러) 내자 66억 9천1백만원(정부투융자) 그리고 실수요자(20%) 74억 6천1백만원 등 총투융자 4백46억 1천 5백만원으로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차주가 되어 가공업체등에 3년거치 15년균분상환(년 2회원금균분상환) 조건으로 전대하게 된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오는 4월중에 2차차관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IBRD측에 승인을 요청 늦어도 7월까지로 차관협정을 체결한뒤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79년도 가축년말 통계

— 한우 1백 56만 2천 6백 마리 —

축산진흥회(회장: 함만준)는 79년도 가축년말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우는 1백56만 2천 5백 91마리로 전년동기에 비해 3.8%가 감소하였으며 유우와 육우는 각각 20.1%, 33.8%가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큰 파동을 겪었던 돼지 사육두수는 2백84만 3천1백63두로 전년동기에 비해 65.3%가 증가된 수치로 집계되었다.

가축사육두수는 다음 표와 같다.

* 주요 가축사육두수 총괄표 *

단위: 마리수

년도	韓	우	乳 牛	肉 牛	馬	豚	면 양	산 양	토 끼	鷄
1971	1,247,061	30,009	2,865	12,893	1,332,513	2,988	127,987	363,588	25,903,054	
1972	1,333,353	36,128	4,868	10,813	1,247,637	3,609	152,227	421,220	24,537,353	
1973	1,486,188	52,424	6,964	10,338	1,594,718	3,750	194,105	586,961	23,070,981	
1974	1,777,711	73,195	7,449	10,320	1,818,338	4,582	252,889	848,394	18,814,204	
1975	1,545,832	85,542	9,979	9,042	1,247,181	5,799	250,211	841,518	20,938,732	
1976	1,451,486	89,688	12,107	8,334	1,952,627	6,810	232,432	919,640	26,325,190	
1977	1,492,036	109,243	16,454	6,847	1,481,889	6,974	216,331	1,047,495	30,224,309	
1978	1,624,301	135,803	27,054	5,696	1,719,364	7,900	244,274	1,042,308	40,753,249	
1979	1,562,591	163,299	36,189	4,641	2,943,163	8,181	225,446	816,708	41,120,522	

도입옥수수 안정기준 가격제도 존속 희망

— 사료협회 회원사 설문조사 —

배합사료회사의 과반수가 1.22 배합사료가격인상은 미흡하며 1.29유류및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상요인이 4.1%에 달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가 지난 2월중 63개 회사원에 설문을 조사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회원사는 46개 회원사로 79.3%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는 배합사료 가격시책에 따른 설문에서 1.22배합사료가격인상은 29개 회원사(63%)가 미흡하다고 반응을 나타내었고, 적정하다는 반응이 12개 회원사(26%), 과도하다는 반응은 5개 회원사(11%)로 나타났다. 또 1.29 유류및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인상요인은 4.1%이며 현행최고판매 가격제도는 존속해야한다가 52%, 자유화시켜야 한다가 48%로 거의 반반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도입옥수수 안정기준 가격제도의 설문중 안정기준가격제도 존속에 74%(34개회사)의 찬성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26%(12개

회원사)의 반응을 나타내 안정기준 가격제도는 존속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또 지정금액의 화폐단위는 원화로 해야한다가 72%, 달러화로 해야한다가 28%의 반응을 나타냈다.

시설근대화에 적정생산능력의 반응은 100 M/T 이상이 14개 회원사(30%), 200M/T 이상이 29개 회원사(63%), 300M/T 이상이 1개 회원사(2%), 기타 2개 회원사(4%)로 응답했다. 1982년의 시설근대화 시한은 임의로 해야한다가 43%, 현행시한이 좋다는 의견과 시한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에 각각 26%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곡류도입기관에 따른 설문에는 축산진흥회에 19개 회원사가, 사료협회에 17개 회원사, 농협에 1개 회원사 실수요자에 6개 회원사, 기타 2개 회원사로 곡류도입은 축산진흥회 또는 사료협회에서 해야한다는 것에 다수(78%)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도축장 자동박피기 사용에 문제

— 돼지고기 훼손을 많아 —

영등포·천호·마장동 등 도축장에서 지난 1월 새로 도입한 돼지박피기는 조작 미숙과 기술부족으로 물량을 제때에 공급을 하지 못하는가하면 비계등을 일정하게 찌르지 못함으로써 고기 훼손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자체조사한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손으로 털을 깎을때는 고기의 훼손이 거의 없었으나 박피기를 도입한후 부터 비계의 두께가 고르지 않고 겹질과 고기가 마구 찢려 나가는등 손으로 박피할때와 비교하면 거의 5%이상의 고기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당국은 기술지도를 보다 강화하여 고기훼손율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용 기름면세

— 유류값인상에 따른 농민부담 덜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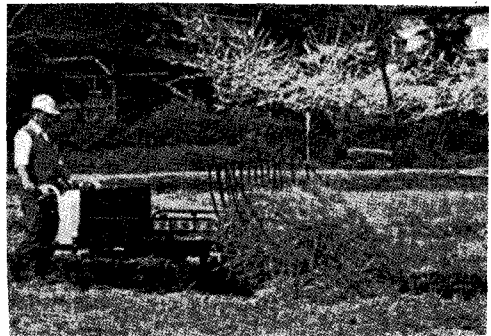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각종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업용 유류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농촌일손부족에 대처,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유류값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재무부, 동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실시키로하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각종 농기계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등 농업용유류는 연 2백50만~3백만드럼으로 면세조치가 이루어질경우 2백억원이상의 농민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농업용 유류와의 구분, 부정유출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농기계등록제와 유류공급전표제실시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실시에 대비, 이제까지 유류판매취급소가 설치돼 있지않은 2백개 단협에 금년중으로 유류취급소를 설치키로 했다.



△ 정부는 영농기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80년도 축산진흥기금 확정

— 축진, 금리 연 18.5%로 조정 —

축산진흥회(회장: 함만준)는 80년도 축산진흥기금 지원을 확정 발표했다.

80년도 축산진흥기금은 5두이내의 한우·육우의 암송아지입식자금 60억원, 강화지구 한우·사로레교잡종 보급사업에 2억4천만원, 육우 단지 및 기존육우사업 양축가에 암소 50두당 종모우 1두를 지원하는 육우종모우 지원사업에 2천5백만원, 대관령 육우시범농가조성사업에 6백만원, 번식목장 신규 조성 대상자의 전업양축가 육성사업에 3억원,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에 2억원 등이다.

용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지난해보다 연 6.0%가 증가한 연 18.5%가 된다.

「화스트·후드」에 관한 세미나

— 오진양행주최 4월 7일 —

현재 미국과 일본등 구미각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스트 후드에 관한 모든 내용에 관한 세미나가 4월 7일 오후 3시 미국대사관 무역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에는 오진양행(대표: 정진국)과 계약을 맺은 미국 Henny Peny사의 기술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화스트 후드 소비동향과 자사의 제품등이 주로 소개된다.

2월중 양계용배합사료 생산 11만 2천톤

— 작년대비 65.3%에 그쳐 —

양계용배합사료생산이 작년동기에 비해 65.3%인 11만 2천 6백13톤에 그쳤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가 발표한 금년 2월중 배합사료생산실적에 의하면 육추사료가 2만 7백75톤, 산란계사료가 8만4백32톤, 육계사료가 1만 1천 4백 6톤으로 이는 작년동기에 비해 각각 66.2%, 93.0%, 20.9%에

미치는 수치이며, 올해들어 양계용 배합사료누계 생산실적은 27만 5천 8백42톤으로 작년동기의 33만 7천 9백84톤에 비해 81.6%에 그쳤다.

금년도 양계용배합사료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M/T)

구분 월별	육 추 사 료				산 란 계 사 료				육 계 사 료			누 계	
	초생추	중 추	대 추	소 계	초 기	중 기	말 기	종 계	소 계	전 기	후 기		소 계
1월	2,438	7,209	17,025	26,672	88,385	36	117	23,839	112,437	7,785	16,335	24,120	63,229
2월	2,535	4,241	13,999	20,775	63,469	149	140	16,674	80,432	6,077	5,329	11,406	12,613
누계	4,973	11,450	31,024	47,447	151,854	185	317	40,513	192,869	13,862	21,664	35,526	75,842



한국바이엘화학 <주> 축산장학금 지급

— 소정의 등록금 전액 지급 —

동물용 의약품 전문 메이커인 한국 바이엘 화학(주) (대표: 김길원)은 연례적으로 전후기에 실시하는 축산장학생 선발시기에 맞추어 전국 8개대학 10명의 축산학, 수의학 전공 학생에게 1학기분 소정의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국대학교 축산학과 4년 박 윤 식
강원대학교 축산학과 4년 안 승 환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3년 김 종 우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3년 김 흥 집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4년 박 강 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2년 박 재 출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4년 전 흥 수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2년 한 성 희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3년 남 두 석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3년 민 동 기

국세청 소득표준율조정

— 양계 1.5% 인하 조정 —

국세청은 소득세의 추계과세(推計課稅) 때 기준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조정확정했다.

5월 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한 이번 조정업종은 표준율과 실질소득이 부합되지 않은 41개 종목으로 영세 및 불경기 등 실소득율이 낮은 양계, 양돈, 철도소운송업 등 19개 종목을 인하했고 벽지, 연와, 화장품 등 22개 종목에 대해 실소득율이 높고 또 호경기업으로 해서 인상했다.

그리고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 위장소득자 가격위반자등 불성실한 사업자에게 적용해오던 이른바 높은 소득표준율(기본율에 30~

150% 가산)을 없앴다.

이밖에 장기계속사업자,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가입자와 성실사업자, 외화획득사업자,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자는 계속 낮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업의 소득표준율 조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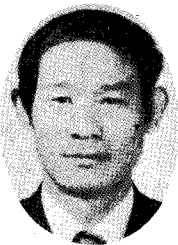
업	태	종	목	78	79	증	감
				기본율	기본율		
축	산	업	농	10	9	△	1
			돈	14	10	△	4
			계	12.5	11	△	1.5

업계 단신

● 박은권(전유한양행농축부, 수원가축약품대표)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청림예식장 1층)에 수원가축약품상사 개설, 유한양행 농축부 근무경력으로 가축질병·사양관리 상담, 가축약품도산매, 축산기구일체 취급. ☎ (수원) 2-2583



(박은권)



(노용덕)

● 선진사료업계 시찰 : 한국사료협회의 김화산상근 부회장과, 남규백(미대사관농무관실), 정규원(홍성사료전무), 노용덕(부국사료전무), 박해준(서해농산대표), 유지련(유경사료대표), 남구한(경북축산대표), 천순식(진양사료전무), 유근재(천광사료전무), 문철명은성사료상무이사, 권영해(삼진사료대표), 이성재(대한제당과장), 정복석(삼화양유전무), 강형모(중앙약품전무) 씨등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26일간) 미국·일본의 사료업계 현황 및 운영실태, C.B.T의 사료 곡물선물 거래상황, 원료보관시설, 유통체계를 견학하고 귀국.

● 경인기계공업사(대표: 정완철) : 태양열을 이용한 축분건조기(실용신안특허출원제 1132호)로 우분·돈분처리시설외에 양계용 소형 계분처리 시설개발 시판중. ☎ 63-4771

○ 박도일 (도일축산대표, 전삼일농장근무) : 서울 은평구 불광동 (☎ 389~0460)에 초생추판매 및 계육납품업무를 취급할 도일축산을 개설하고 강운길전무, 지기경과장, 정기남주임을 기용.

○ 차두홍 (한일농원대표) : 동남아지역 중계수출 시장조사차 45일간 예정으로 4월 7일 출국예정.



(차두홍)



(정인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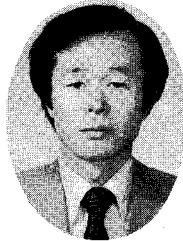
○ 정인범 (우성실업회장) : 지난 3월 2일 일본의 배합사료공장 기계시설과 사료업체시찰차 독일하여 3월말 귀국

○ 미국사료협회 한국지부 (지부장 : 박영인) : 대한양계협회와 공동으로 미국의 저명한 채란업 전문가인 Mr. Robert Sparboe를 초빙 현대양계경영의 특징에 관해 특별 세미나를 4월 11일(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 자세한 것은 대한양계협회 (☎ 22~3571~2)로 문의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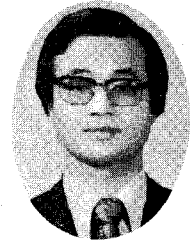
○ 대일유업 (대표 : 임영대) : 유제품 판로확장에 대비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하루 평균 1백여톤의 원유를 처리가공할 수 있는 남부유가공공장을 부산근교에 4월중 착공예정.

○ 한국유가공협회 : 우유위생관리 세미나를 3월 4일 합정동소재 해태유업 서울판매소에서 개최.

○ 신정일 (유일농원영업부장, 본지편집위원) : 프랑스 정부초청으로 International Seminar on Farming에 참석후 귀로에 미국 양계업계 시찰을 마치고 지난 3월 26일 귀국



(신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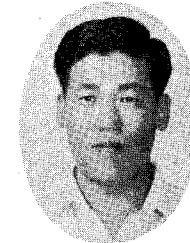
(원승대)

○ 원승대 (본지 편집위원, 전한일사료) : 연암 축산대학 축산과 교수로 발령.

○ 광성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대리) : 캐나다 국제곡물연구소 초청으로 5월 6일에서 6월 20일(40일간)까지 열리는 제 13차 세계곡물산업연수과정에 참석예정 동과정에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등 17개국의 17명의 사료관계인이 참석 곡물의 취급 및 마케팅과 등급에 관한 세미나, 강의, 실습등의 학술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



(광성재)



(배선채)

○ 중원농장 (대표 : 배선채) : 사세확장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영업업무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개설 ☎ 57-4291

○광주부화장(대표: 박종인) : 최신시설 도입에 따른 사세확장으로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201번지 (☎ 담양금성 78)로 부화장이전 (본사 ☎ <광주> 8-1107, 2198)

○금강축산약품기구상사(대표: 김영부) : 사세확장으로 ☎ (대전) 2-3102 증설.

○고창양계센터(대표: 신흥중) : 양계기구 제작소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28번지 (☎ 고창 673번)로 확장이전

(전주연락소) ☎ 2-1033, 3-8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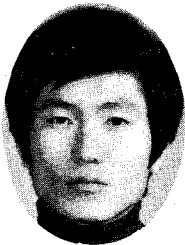
(서울연락소) ☎ 51-2550

○동양부화장(대표: 박인수) : 전화번호 변경 ☎ (전주) 4-3491~2

(야간직통) (3) 1678

업계 인사

◎한국고킹<주> (대표: 김운호) : 사세확장에 따라 영업부에 문창욱(전대 축산과졸)씨를 특채.



(문 창 욱)



(조 성 남)

◎신기농장(대표: 이상운) : 업무부장에 조성남(전 기룡농원농장장)씨를 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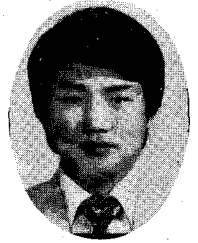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대표: 윤지병) : 영업부에 김영일(전대 축산과졸)씨를 특채.

◎제일사료<주> (대표: 이회섭) : 영업부에 조양연(전서원사료)씨를 기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광인신(전대축대졸), 구중완(전대축대졸), 황덕주(영남대 농축대졸), 김영식(전남대졸), 박영록(전양계장경영)씨를 신규채용.

◎증원농장(대표: 배선채) : 서울·경기 지역 영업담당에 옥영철(전삼일농장)씨를 기용.



(옥 영 철)



(장 원 철)

◎제일제당<주> (대표: 경주현) : 사료기술부에 안용호(전 대한신약)씨와 장원철(전대축대졸)씨를 채용하고 사료판매부에 지역소장으로 임상훈(전 천호부화장)씨를 기용.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영업업무 강화를 위해 영업과장에 서영채(전 은성사료)씨를 기용.

◎한국바이엘화학<주> (대표: 김길원) : 경리실 차장에 정정부씨를 특채하고, 영업부 고태영씨를 의정부지역 담당으로 발령.

◎이화약품공업사 (대표: 김상곤, 이정협) : 영업부에 양경덕(전대축대졸)씨를 특채